프랑스 실업급여 상한액 대폭 축소

▲ 기자회견하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

프랑스 정부가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 최대 7천700유로(약 9,500달러)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보통 임금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던 월 급여의 평균 57% 수준에서 책정되며 실직 후 최대 2년(55세 이상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 정도가 최고액수인 월 7천700유로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실업급여기금에 따르면, 프랑스 실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평균은 월 1천200유로(약 1,300달러)이지만, 기업 고위직을 하다 실직한 사람을 비롯한 고소득자는 최대 월 7천700유로까지 수령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높은 실업급여의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전 직장에서의 급여가 높을수록 실업급여의 감액 폭을 확대하는 역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북한의 은밀한 핵 시설을 발견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이 불발된 데는 영변 외(外) '플러스 알파' 인 추가 핵 시설 폐지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아시아경제' 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나?' 라는 질문에 "더 필요했다." 며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고 답했다.

미국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북한의 추가 핵 시설을 찾았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핵 시설의 경우 그 존재가 이미 널리 알려진 데다 미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핵 시설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비밀 정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 핵 시설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 고도 말했다. 회담이 의견 차이로 결렬된 상황에서 굳이 상대 측인 북한의 반응까지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의도가 있었을 거란 분석이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조만간 재개될 비핵화 및 대북제재 완화 협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미사일 목록 신고에 소극적인 북한을 상대로 다음 협상땐 보다 큰 비핵화 조치를 가져오라는 압박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의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위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탄 차량이 현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을 떠나고 있다(아래 사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핵 시설로 '강선'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등이 거론된다. 이 곳은 수천대의 원심분리기가 있으며,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국에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번 협상에서 영변 외 핵 시설 폐지 및 포괄적 핵 신고를 대북제재 상응조치로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뷔페식당 매매

1. **업종**: 미국 남부식 뷔페
2. **위치 (City, State)**: CEDARTOWN , GEORGIA
3. **건물 형태 및 규모**: 단독 건물, 약 2800 sqft
4. **1년 세일즈 금액**: $18만 ~ $20만
5. **영업시간**: 월 ~ 토 11:00am ~ 8:30 pm, 일 11:00am ~ 3:00pm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휴무)
6. **매도 사유**: 은퇴
7. **가격**: 총 $470,000 (비즈니스 $180,000, 건물 $290,000)
8. **소재지 인종 분포**: 백인 80%, 흑인 10%, 기타 10%
9. **주변 환경**: 시의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앞에는 맥도날드 양 옆엔 타코벨과 서브웨이가 있음
10. **기타**
    1) 인수 금액 부족 시 오너 파이낸스 (금액은 상의 후 조절) 가능
    2) 현재 테이블 수 및 수용 인원: 테이블 20개, 수용 인원 80명
    3) 건물 안의 모든 시스템은 한글로 정리되어 있음
    4) 건물 관리 및 유지, 보수 비용 저렴함
    5) 건물 내 모든 전등은 LED로 교체함
    6) 모든 전등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일광의 양에 따라 외등, 벽등, 간판등이 자동으로 ON/OFF됨. 화장실등은 모션 센서를 적용해 움직임이 포착될 때만 켜짐)
    7) 운영을 위한 트레이닝은 물론 에어컨, 주방 기기 등의 유지 · 관리와 수리 방법도 전수해 줌 (트레이닝 기간은 한 달 이상 가능, 모든 기기는 현찰 매입했음)
    8) 사업장이 있는 조지아주는 중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미 전역에서 물가와 집값이 매우 저렴한 편이고 기후는 한국과 거의 흡사함. 한국으로 가는 직항이 있으며 한인 타운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
    9) 초급 수준의 영어 실력이면 운영상 어려움 없음
    10) 현재 부부(아내는 주말에만 일함)와 종업원 한 명(보수: 2주에 $1200)에 의해 운영됨

연락처: E mail : pbpbpb22@gmail.com / Phone : (404) 966-3436 (먼저 문자로 연락 후 전화 바람)